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Factors That Decide the Job Continuity of Young Mothers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지경

Korea Labor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Ji-Ky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ritical factors that decide the job continuity of married women after one of their life events, childbirth. It is based on the employment data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s. 1-4, having observed 128 young mothers who gave birth to children after 1997. The analysis showed that women's employment after their maternity leave depend on whether new mother return to their previous job or not.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women's age, education, availability of caretakers for their children, and family incom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omen's return to their pre-leave employers after childbirth. Second, professional or office work and the frequency of job transition before childbirth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en's employment in new jobs after childbirth. Third, women's age, availability of caretakers of their children, and professional or office work are critical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en's job continuity after childbirth, whereas the frequency of job transitions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for women.

주제어(Key Words) : 기혼여성(married women), 자녀출산(childbirth), 취업연속성(job continuity), 한국노동패널(KLIPS)

I. 서론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24세 때 62.1%였던 것이 25세-29세에 59.8%로 점차 낮아지면서 30-34세에 49.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여 40세-44세에 63.8%로 최고점에 달하고 이후 점차 낮아지는 'M' 자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2).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결혼 및 자녀 출산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였다가 자녀양육시기가 지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M' 자형 분포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두 꼭지점인 20대와 40대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집단이기보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여성개발원, 2000; 장지연·김지경, 2001). 첫 번째 꼭지점에 해당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 대다수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에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꼭지점에 해당하는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주로 농림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 'M' 자형 분포의 두 꼭지점에 해당하는 집단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분절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가하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로 기혼여성들의 하향취업과 여성인력에 대한 평가절하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성에게 있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단절 없이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연속적인 취업이 중요한 이유는 생애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취업을 통해 유지 또는 획득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의 학습곡선(Learning Curve)이 중단되어 재취업이 어렵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취업의 장해요인이 되는 출산을 중심으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연속성 분석하는 일은 보다 구체적인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 적절한 자료의 부족으로 출산시기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자료를 사용하여 출산시기를 중심으로 한 기혼여성들의 취업 연속성 결정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이 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확립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출산 후 취업상태 변화 유형

출산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존재여부, 6세 미만 자녀의 존재, 자녀 수, 첫 출산 시기 등의 변수들로 대리되어 분석되었고, 대체로 부적인 관계로 밝혀져 왔다(Becker, 1965; Bowen & Finegan, 1969; Heckman, 1974; Killingsworth & Heckman, 1986; Blau & Robin, 1989; Klerman & Leibowitz, 1990; Connelly 1992; 심경옥, 1984; 여정성, 1994; 이재열, 1996; 김영옥, 1998; 박수미, 2002). 그 이유는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출산 후 취업을 하는 데에는 자녀양육 비용 등의 노동공급비용이 들게되어, 결국 여성의 순 시장임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성취업에

부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Heckman, 1974; Blau & Robin, 1989; Connelly 1992; Klerman & Leibowitz, 1990).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분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취업에 대한 출산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출산을 둘러싼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반면, 출산과 자녀양육이 완료된 이후 시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산 이후 여성의 취업상태는 연속적인 취업, 취업에서 비취업, 새로운 신규 취업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 출산 후 여성의 취업상태의 변화를 유형화한 대표적인 연구는 1980년도 영국의 WES(Women and Employment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영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을 연구한 Hakim(1996)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Hakim(1996)은 여성의 생애 취업유형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는 연속취업(continuous employment)형과 결혼이나 출산 이전의 취업상태에서 노동시장을 탈퇴하는 가정주부(homemaker career)형 그리고 취업상태와 비취업상태가 반복되는 불연속 취업(discontinuous employment)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Hakim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최근세대일수록 불연속적 취업형의 비율이(48%) 연속취업형(15%)이나 가정주부형(37%)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속취업형의 증가는 미미하고 가정주부형에서 불연속 취업형으로의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Hakim은 여성의 시장노동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노동시간이 연속적인 시간 이라기보다는 조각난 파편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여성이 불연속적 취업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영옥(1998)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에게서 보여지는 취업유형은 불연속취업형(32.8%), 결혼이후 취업을 중단하는 가정주부형(28.0%), 결혼 후 취업형(16.7%), 연속취업형(11.4%),

비취업형(11.1%)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연속취업형은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비중이 각각 높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정주부형은 고졸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후 취업하는 유형은 저학력·고연령층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두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취업의 연속성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는 이동이 빈번하지 않아 동일 일자리에서의 취업연속성이 오랜 시간 나타나는 반면,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과 같은 직종에서는 빈번하게 이직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경우, 직종이동의 방향이 대부분의 수직적 하향이동(김영옥, 1998)으로 나타나 출산과 양육이 노동단절의 근간이 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치러야 하는 취업경력상의 비용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kim(1996)과 김영옥(1998)의 연구에서 분류되어진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상태 유형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연속취업형(continuous employment)은 고학력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 유형에는 출산 휴가 기간에만 노동시장에서 잠시 탈퇴하였다가, 출산 한지 2개월 미만 기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우와, 출산 후 노동시장에 되돌아오는 하나, 복귀하기까지 2개월 이상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둘째, 가정주부형(homemaker career)은 출산 이전에는 취업상태였으나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탈퇴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학력의 여성이 전형적으로 가정주부형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김영옥, 1998)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유형에 고졸학력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 사무직을 중심으로 고용되었던 고졸학력의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유지 및 노동시장 재진입이 매우 어려워 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대졸학력 기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공급

을 하지 않는 것에 반해 고졸학력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유지 및 재진입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Hakim(1996)의 연구에서 주로 젊은층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던 불연속 취업형(discontinuity employment)은 출산 이전에 취업상태였다가 출산 이후 자녀양육시기에 노동시장을 탈퇴하고, 자녀양육시기가 끝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학력·고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노동시장에서 이직한 경험이 많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출산 후 취업상태 유형은 결국 출산 전 취업상태였던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출산 후의 취업상태의 연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요인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2. 출산 후 취업상태유지의 영향 요인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연령과 학력이다. 인적자본 특성에서 논의될 학력을 제외하고, 연령만을 살펴보면, 대체로 젊은 여성들이 빠른 시기에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들의 취업이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인지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Desai & Waite(1991)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층의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높고, 취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동일 일자리에서의 취업연속성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여성들을 대상으로 NLSY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Phang(1994)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여성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기는 하나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Hakim(199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생애에 노동시장 참여시간이 불연속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적자본관련 요인

출산 전 후 취업상태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관련 요인은 학력과 경력에 따른 노동시장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을 둘러싼 시기에 있어 학력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혼여성 생애과정에서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고학력일수록 출산 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살펴보면, Chang(1997)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임금은 출산 직후 더 높아져, 출산 이후 경제활동 참여에 이들의 학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 Leibowitz와 그의 동료들(1991)은 고학력보다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출산 후 취업상태 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Flemlee(1984)는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떠날 때도 빠르게 떠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연구에서도 학력효과에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는데, 이재열(1996)의 연구에서는 대졸학력여성들의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이행확률이 낮아서 우리나라 대졸이상의 여성들은 일단 비취업 상태에 놓이면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옥(1998)의 연구에서는 대졸학력이 아닌 고졸학력 여성의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과 함께 임금에 반영되는 경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취업경력이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수미

(2002)는 첫 취업 이전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8년 정도나 취업시점을 연기하는 반면, 첫 취업을 한 뒤 결혼과 출산을 한 여성들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고 하였다. 김영옥(1998)은 과거 취업경험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과거의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동횟수가 한번 증가하면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1.2배정도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잦은 이동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반면, 과거 총 비취업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으로의 상태전환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Chang(1997)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학력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출산 후 비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하였고, Barrow(1999)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전에 일을 했던 여성들의 3/4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력과 경력이 반영된 임금은 자녀관련 요인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낮다. Mason & Kuhlthau(1992)는 여성 자신의 임금수준은 남편을 비롯한 기타 가족의 소득수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 비해 자녀 양육문제가 그들의 취업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enk & Garret(1992)도 여성들의 출산 후 지속적인 취업에 영향력을 가지는 남편 수입의 부(-)적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여성 자신의 수입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출산 후 취업상태로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Klerman & Leibowitz(199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장임금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한다고 하였다. 또한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의 임신기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의 높은 임금은 임신기간동안에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의 이행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결과(Flemlee, 1984b)도 있다. 결국,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은 여성의 잠재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Barrow, 1999; Johns, 1999), 높은 임금을 갖는 여성은 출산 후 노동시장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Dex와 그의 동료들(1998)은 자녀출산을 연기하는 높은 임금의 여성은 자녀의 연령이 어린 동안에도 시장노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령이 20대 초반이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 또한 자녀출산을 미루는 고임금의 여성들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나, 항상 연속적인 고용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저임금 여성의 경우는 자녀 출산을 미룰지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3) 가족 및 자녀보육관련 요인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대체성이 가장 낮은 자녀보육 관련요인은 출산 후 여성을 비취업상태에 머물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중 하나이다. 자녀보육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Clifford & Tobin, 1977; Lerer & Nerlove, 1984). 예컨대 Klerman & Leibowitz(1990)는 자녀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친인척을 보유한 여성들이 출산 후 빠르게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1/2이 자녀보육을 맡는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을 분석한 서지원, 이기영(1997)의 연구에서도 자녀보육자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취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부모에 의한 보육과 같은 높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존재는 금전적인 자원 이외에 여성이 보육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한을 덜 느끼게 한다(Mason & Kuhlthau, 1992). 성지미, 차은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보육을 맡아줄 수 있는 부모세대와의 동거, 특히 여성노인과의 동거가 여성의 근로시간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인이 기혼취업여성이 필요로 하는

가사 및 보육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시장 탈퇴를 증가(Blau & Robin, 1989; Conelly, 1992; Barrow 1999)시키게 되는데, 보육을 맡아 줄 친인척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낮은 보육비용을 지출(Heckman, 1974)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임금을 갖게 되어 노동공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계경제관련 요인

가계의 소득수준은 여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은 가사 노동이나 여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혼여성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소득에 따라 자신의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장지연, 김지경, 2001).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근로시간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가구의 총소득이 낮은 경우 여성이 생계유지 또는 가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동공급을 한다는 소득효과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lerman & Leibowitz(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 후 바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남편 등 기타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ex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소득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k & Garrett(1992)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출산 직후 취업에 여성 자신의 수입능력 효과는 더 커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소득의 효과는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편의 소득이나 가구의 총소득과 같은 가계 경제학적 측면의 요인이 여성의 노동공급 특히,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있어서 여전히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최근 서구의 연구들(Klerman & Leibowitz, 1990; Mason & Kuhlthau, 1992; Wenk & Garret, 1992; Barrow, 1999; Johnes, 1999)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여성

자신의 시장임금이 가계경제 변수보다 노동시장행동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단지 가계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가적인 노동공급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이다. 이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 이래 매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만들어지는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이다.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표본가구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조사년수가 늘어가면서 표본가구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 특히 학교 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 이동(Labor Market Transitions)과정이 파악 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4년(1998년~2001년)에 걸친 반복조사를 통해 추적된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 이동(labor market transition) 과정을 포착한 부분이다. 취업력에는 15세 이상 표본 원가구원의 생애 경험한 모든 일 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자료(retrospective data)도 포함되어 있다.

2) 분석대상

분석의 대상은 출산경험과 생애 취업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572명 중 첫 자녀 출산시기가 1997년 이후이면서 출산 전 취업상태였던 128명이다. 분석대상을 1997년 이후에 첫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인

면서 출산 전에 취업상태였던 128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자료에는 노동시장 경력과 관련된 일부분의 회고자료를 제외하고는 1997년 이전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이전의 한국노동패널자료에는 15세 이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그리고 취업형태에 관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일 뿐, 여성의 노동공급과 노동시장이동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2. 분석방법 및 모델

분석은 출산 후 취업상태에 따른 여성의 특성을 인구학적특성(연령, 학력), 가계특성(자녀보육대행자, 가구소득),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취업형태, 근로시간형태, 직업, 근로소득, 근속년수, 직업전환횟수, 복귀기간)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출산 후 취업연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Model)과 이항로짓(dichotomous logit model)모델로 분석된다. 모델분석에서는 표본수와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기술통계에서 비교분석된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변수 중 취업형태, 근로시간형태, 근로소득, 근속년수, 복귀기간이 제외되었다.

다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출산 전 일자리를 보유했던 여성 중에서 출산 후 출산 전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j=1)과 새로운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j=2), 그리고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비취업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성(j=3)이다. 예컨대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 i 라고 할 때, 기혼여성이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잔류하지 않고 동일일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text{logit}_{i1} = \log [\pi_{i1}/\pi_{i3}]$$

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출산 후 여성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text{logit}_{i2} = \log [\pi_{i2}/\pi_{i3}]$$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 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text{logit}_{ik} = \alpha_{ik} + x_i\beta_k$$

이다. 여기서 α_{ik} 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_k 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녀보육자유무, 직업, 직업전환횟수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수설명에 제시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출산 전 일자리를 보유했던 여성 중에서 출산 후 출산 전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j=1)과 새로운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j=2)이다. 예컨대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 i 라고 할 때, 기혼여성이 출산 후 출산 전 일자리에서 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text{logit}_{i1} = \log [\pi_{i1}/\pi_{i2}]$$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 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text{logit}_{ik} = \alpha_{ik} + x_i\beta_k$$

이고,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다항로짓모델과 같다.

3. 분석변수

1) 종속변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산 이전의 일자리가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모델의 종속변수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선, 출산 전 취업상태였던 128명의 기혼여성 중 출산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과 비취업상태로 전환한 여성을 나누고, 다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 중 동일한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y=1:n=43)과 새로운 일자리(y=2:n=27)로 돌아오는 여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의 취업 연속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준거가 되는 집단은 출산 후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y=3:n=58)으로 설정하였다. 이

〈표 1〉 설명변수의 조작적 정의

(N=128)

변수		조작적 정의	비율 또는 평균
가변수	학력	대졸이상=1 (대졸미만=0)	21.9% 78.1%
	자녀보육대행자	있음 (없음)	25.8% 74.2%
	직업	전문·사무직=1 (그 외=0)	66.4% 33.6%
연속변수	연령	만나이	27.2
	가계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자연로그값	5.0
	직업전환횟수	출산 전까지 일자리 변경횟수	1.4

항로짓모델에서의 종속변수는 출산 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을 제외한 취업상태를 유지한 70명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 중 동일한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y=1:n=43$)과 새로운 일자리($y=2:n=27$)로 돌아오는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설명변수

본 분석의 설명변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가변수로는 대졸여부의 학력과 자녀보육대행자 유무 그리고 전문·사무직 여부의 직업이 모델에 반영되었으며, 연령과 가계소득 그리고 직업전환횟수가 연속변수로 반영되었다.

IV. 연구결과

1. 출산 후 취업상태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특성

분석 대상자 128명의 특성은 출산 후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져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의 평균 연령은 27.2세이고,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의 평균연령이 28.7세로 상대적으로 높고,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집단이 26.3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기보다는 빠르게 취업상태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esai & Waite, 1991; Phang, 1994)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며,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평균 교육년수는 13.3년인데, 출산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이 14.3년으로 교육년수가 가장 길고, 출산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집단이 12.6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보다는 고졸이하 학력이 출산 후 취업상태 유지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졸학력의 여성이 출산 후 비경제활동 상태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eibowitz et al, 1991; 김영옥,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후 발생하는 비취업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인적자원 마모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이 고졸이하 학력의 여성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할 수 있겠다.

둘째, 가계특성으로서 자녀보육대행자 유무와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74.2%가 자녀보육대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53.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Heckman, 1974; Clifford & Tobin, 1977; Lerer & Nerlove, 1984; Klerman & Leibowitz, 1990; Mason & Kuhlthau, 1992; 서지원, 이기영, 1997; 성지미, 차은영, 2000)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표 2> 출산 후 취업상태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특성

변수	변수값	출산 후 취업상태					$\chi^2/F(t)$ value	
		출산 전 일자리 (N=43)	새로운 일자리 (N=27)	비경제 활동 (N=58)	전체 128(100.0)			
인구 학적 특성	연령	25세 미만	3(7.0)	8(29.6)	11(19.0)	22(17.2)	$\chi^2=23.53^{***}$	
		25세-30세미만	27(53.5)	18(66.7)	42(72.4)	83(64.8)		
	30세 이상	17(39.5)	1(3.7)	5(8.6)	23(18.0)			
	평균(세)	28.7	26.3	26.5	27.2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13(30.2)	18(66.7)	44(75.9)	75(58.6)	$\chi^2=22.75^{***}$	
		대졸이상	13(30.2)	4(14.8)	8(13.8)	25(19.5)		
	평균(년)	14.3	12.9	12.6	13.3			
가계 특성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23(53.5)	4(14.8)	6(10.3)	33(25.8)	$\chi^2=26.17^{***}$	
	없음	20(46.5)	23(85.2)	52(89.7)	95(74.2)			
	가구소득	본인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총 소득(만원)	244.7	173.4	154.2	188.7	F(t)=6.19**	
출산 전일 자리 특성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36(83.7)	18(66.7)	55(94.8)	109(85.2)	$\chi^2=11.66^{**}$	
		비임금근로자	7(16.3)	9(33.3)	3(5.2)	19(14.8)		
	근로시간형태	전일제	28(65.1)	11(40.7)	10(17.2)	84(65.6)	$\chi^2=24.04^{***}$	
		시간제	15(34.9)	16(59.3)	48(82.8)	44(34.4)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기타	전문관리직	17(39.5)	5(18.6)	9(15.5)	31(24.2)	$\chi^2=15.19^*$
			사무직	16(37.2)	8(29.6)	30(51.7)	54(42.2)	
			서비스직	7(14.0)	12(44.4)	10(17.2)	28(21.8)	
			생산직	3(7.0)	1(3.7)	3(5.2)	7(5.5)	
기타			1(2.3)	1(3.7)	6(10.4)	8(6.3)		
근로소득	월평균 임금(만원)	106.5	84.1	91.3	94.9	F(t)=1.77**		
근속년수	일자리 근무기간(개월)	74.2	27.0	41.3	49.4	F(t)=19.75^{***}		
직업전환 횟수	생애 일자리 변경 횟수(회)	1.1	2.5	1.2	1.4	F(t)=12.66^{***}		
복귀기간	출산 후 복귀까지 기간(개월)	2	19.1	-	8.6	F(t)=-8.44^{***}		

*: p< .05, **: p< .01, ***: p< .001

자녀보육이 출산 후 여성의 취업상태유지에 중요변수임을 강조하는 결과이며, 특히 출산 전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은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에 있어서도 244.7만원으로 전체 평균 188.7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집단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집단의 경우는 각각 월평균 173.4만원과 154.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음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과 반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가 젊은 여성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출

산 직후 취업에 여성 자신의 근로소득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선행연구(Wenk & Garrett, 1992)의 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서구 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행태가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보여지며, 우리나라의 젊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부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85.2%의 취업형태가 출산 전 임금근로였고, 특히 출산 후 비경제활동에 편입된 집단의 경우는 94.8%가 임금근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는 전문관리직의 비율(39.5%)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의 경우는 출산 전 서비스직(44.4%)에 종사하였던 여성이 많으며, 출산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집단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비율(51.7%)이 출산 전 사무직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또는 출산 전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상 사무직의 임금근로로서 피고용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근로시간형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65.6%가 출산 전 전일제로 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집단의 경우는 출산 전 시간제근로의 비율이 각각 59.3%와 8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94.9만원이고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

하는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이 10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의 근로소득이 84.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임금이 높을수록 빠르게 취업상태를 유지하며, 특히 3개월 이내에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며, 자녀 연령이 어린 동안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lerman & Leibowitz, 1990; Dex et al,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출산 전 일자리에에서의 근속년수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출산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가 74.2개월로 가장 길고,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이 27.0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경력이 많은 여성일수록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hang, 1997; 박수미, 2002)와 일치한다.

생애 일자리 변경 횟수는 평균 1.4회이고,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이 2.5회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산 시점부터 출산 후 취업상태에 있기까지는 평균 8.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출산 후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은 평균 2개월로 나타나고,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집단은 평균 19.1개월로 나타나 출산 전 일자리 유지여부에 따라 복귀기간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일자리 이동을 경험한 여성이

<표 3>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연령	교육가변수	자녀보육 대행자유무	월평균 가계소득	출산 전 전문· 사무직 종사여부	직업전환 횟수
연령	1.000					
교육가변수	0.267***	1.000				
자녀보육 대행자유무	0.091	0.206**	1.000			
월평균 가계소득	0.082	0.219**	0.003***	1.000		
출산 전 전문· 사무직 종사여부	0.150*	0.256***	0.192**	0.136	1.000	
직업전환횟수	0.038	-0.031	0.046	-0.070	0.082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취업연속성의 결정요인 분석

변수	변수값	다항로짓결과		이항로짓결과
		Logit(a/c) ²⁾	Logit(b/c)	Logit(a/b)
상수		-6.97(2.48)**	-0.23(2.85) ¹⁾	-7.89(3.69)*
연령	만나이	0.25(0.08)**	-0.09(0.11)	0.31(0.13)*
학력	대졸이상(대졸미만)	0.61(0.32)	-0.55(0.41)	0.05(0.92)
자녀보육대행자	있음(없음)	1.14(0.31)***	0.14(0.42)	2.56(0.93)**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 값	0.03(0.01)	0.03(0.02)	0.02(0.02)
직업	전문·사무직(그 외)	0.17(0.28)	0.83(0.31)**	1.41(0.83)
직업전환횟수	생애 일자리 변경 횟수	-0.08(0.22)	1.01(0.24)***	-1.06(0.33)**
N		128		70
-2 log likelihood		187.81***		51.42***

*: p< .05, **: p< .01, ***: p< .001

주: 1) ()안은 표준오차

: 2) a=동일일자리, b=새로운 일자리, c=비경제활동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총 비취업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으로의 상태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영옥, 199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기초분석을 통하여 볼 때, 출산 후 취업상태에 따른 여성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출산 후 취업연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모델분석을 통해 출산 후 취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출산 후 취업연속성의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취업연속성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델과 이항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모델분석에 앞서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여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3〉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이며, 분석결과 상관계수값이 0.7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logit(a/c)는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과 출산 전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의 로짓분석이고, logit(b/c)는 출산 후 비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과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의 로짓분석이며, logit(a/b)는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과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여성의 로짓분석이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가 출산 후 출산 전과 동일한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동일한 일자리에서 연속적인 취업이 보다 용이하다는 결과이다. 또 출산 후 가계에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 보다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자녀보육의 문제가 핵심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며, 여성이 취업으로 인하여 갖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사적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연속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취업에는 직업과 직업전환횟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전에 전문·사무직에 근무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직업변경의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혼여성의 재취업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보다는 출산 전 전문·사무직에 종사했던 여성의 경우가 출산 이후 재취업에 보다 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변경 경험이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번의 구직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구직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기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로 편입되지 않고 취업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출산 전 일자리에서 유지하는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상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자녀보육대행자, 그리고 직업전환횟수로 밝혀졌다. 즉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계에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여성이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전환횟수가 많을수록 출산 전 일자리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같으나, 그것이 출산 전 후 동일한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일자리에서인지 아니면 출산 전 후 다른 일자리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 변수는 출산 후 취업유형이 연속취업형인지, 불연속취업형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델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출산 후 기혼여성이 비경제활동상태에 편입되기보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연령과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가 결정요인이 되지만, 출산 후 취업상태의 유지가 출산 전 일자리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상태 유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의 불연속적 취업의 유지인지를 판가름하는 요인은 생애 일자리 변경 횟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사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출산 전 생애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리 변경한 횟수가 많은 여성들은 출산 후 출산 전 일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출산 후 취업상태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출산 후 연속적 취업을 가능케 하는 결정요인들을 규명하고자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우선, 출산 후 출산전 일자리에서 연속적인 취업을 유지하는 여성과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여성 그리고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의 특성은 차이가 있으며, 그 중 연령, 자녀보육자의 유무는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 보다는 출산 전 일자리에서 연속적인 취업을 하는데 정(+)¹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출산 전 전문·사무직에 근무여부와 직업전환횟수가 출산 후 비경제활동상태 보다는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비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 비연속적인 취업상태인지 연속적인 취업상태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연령과 자녀보육대행자 유무가 정(+)³의 영향을 미치고, 직업전환횟수가 음(-)⁴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제반정책을 정립하는데 있어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생애 사건으로서의 출산을 전후한 취업과 관련한 제반 기초정보들을 다시 면밀하게 검

토하고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출산 이후 여성의 취업상태는 그것이 연속적인 취업이나 불연속적인 취업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이들 취업유형에 포함되는 기혼여성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유형에 따른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이 다르게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전 일자리에서 연속적인 취업을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학력의 전문·사무직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인적자본을 보다 효과적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적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산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불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집단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출산 후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 이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 후 제도적 장치의 모성보호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같이 출산 후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도적으로 모성보호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과 구체적인 제도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인력 활용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한 미시분석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누적된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전체 기혼여성이 아닌, 1997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만으로 분석대상이 젊은 기혼여성으로 매우 제한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제한은 분석모델 또한 단순하게 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후 한국 노동패널자료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누적된다면 보다 다양한 관련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되며, 기혼여성의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보다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영옥(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경, 조유현(200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5-24.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서지원, 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 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09.
- 성지미, 차은영(2000).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62-83.
- 심경옥(198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한국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2), 72-100.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5-44.
- 장지연, 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65-388.
- 한국노동연구원(2002).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er's Guide.
- Barrow, L. (1999).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3, 432-451.
- Blau, D. & Robins, P.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 287-299.
- Chang, Jiyeun (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83-90.
- Desai, S. & Waite, L. (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Dex, S., Joshi H., Macran, S., & McCulloch, A. (1998). Women's Employment Transitions Around Child Bear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1, 79-98.
- Felmlee, D. (1984a). A Dynamic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Exits. *Demography*, 21, 171-183.
- _____ (1984b), A Dynamic of Women's Job Mobility. *Work and Occupations*, 11, 259-281.
- Hakim, C. (1996). *Key Issues in Women's Work: Female heterogeneity and the polarisation of women's employment*. London: Athlone.
- Heckman, J.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679-694.
- Klerman, J. A & Leibowitz, A. (1990).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80-2, 284-290.
- Leibowiz, A., Klerman, J., & Waite, L. (1991). Employment of New Mothers and Child Care choice : Differences by children's ag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12-134.
- Lehrer, E. & Nerlove, M. (1981). The Labor Supply and Fertility Behavior of Married Women.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3, 123-145.
- Mason, K. O. & Kohlhau, K. (1992). The Perceived Impact of Child Care Costs on Women's Labor Supply and Fertility. *Demography*, 29, 523-543.
- Phang, Hanam (1994).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tial, and Determina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Wenk, D. & Garrett, P. (1992). Having a baby: Some Predictions of Maternal Employment Around Childbirth. *Gender and Society*, 6-1, 49-65.

(2003년 6월 16일 접수, 2004년 1월 28일 채택)